



올해 방송 잘하는 아나운서로 CBS 이명희, OBS 흥원기 제2회 황금메아리상 수상

6월 7일 정례 모임과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함께 개최

CBS 이명희, OBS 흥원기 아나운서가 '2016 방송 잘하는 아나운서'로 선정되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임국희(전 MBC) 회장은 5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CBS 라디오 <이명희의 랄랄라>를 진행하는 이명희 아나운서와 OBS TV <OBS초대석>의 흥원기 아나운서에게 제2회 '황금메아리상'과 부상을 수여했다. [수상 소감 3면]

아나운서클럽에서는 매년 연말 모범 아나운서에게 수여하는 <아나운서클럽상>과 함께 2015년 상반기부터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아름다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남녀 아나운서에게 <황금메아리상>을 주며 격려해왔다. 제1회 수상자는 KBS TV <황금연못>의 김홍성, SBS 라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유명미 아나운서였다.

임국희 회장이 "아름답게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 축복받은 마음으로 잘 즐기다 헤어지자."라고 인사말을 했듯이, 2분기 정례 모임은 경남 창원 1박 2일 여행 후 첫 만남의 자리인데다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을 겸해 더욱 풍성한 잔치였다.

특히 이명희 아나운서를 축하하고자 선배 이지연·이정은·차기정·변춘애, 현역 김은영 실장·유지수·이종민 등 CBS 박수부대가 출동해 주목을 끌었다.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유지철, 전찬희, 채영신, 김은영, 변춘애, 이명희, 유지현, 유명미, 이명혜, 차기정, 안희재, 유영선, 이강민, 황인우, 김준우, 이지연, 조은유, 이혜옥, 권장수, 김성준, 이보길, 노영인, 김재영, 이계진, 성선경, 김관동, 박민정, 이정은, 김규은, 조길자, 윤영중, 민병연, 전용덕, 임국희, 임택근, 황우경, 배덕환, 김승한, 김규홍, 차인태, 한선교, 송옥석, 정도영, 이형균

전용덕(전 KBS) 고문은 "방송의 거울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방송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며 건배사를 했다.

김승한(전 KBS) 회원은 "아나운서 직종의 존폐 위기 속에 아나운서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의 화두가 되길 바란다. 영역을 지키고 위상을 드높이자. 아나운서는 영원하다."

다음 모임 8월 30일 (화) 오후 6시 30분 열빈

라고 당부했다.

이어 "처음 금배지를 달고 '난 꼭 당선이야' 해야 했다. 아나운서니까!"라고 말했다. 재선 때는 '잘해야 된다. 아나운서니까!'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잘하겠다. 왜냐하면 아나운서니까!"라는 4선 의원 한선교(전 MBC) 회원의 명연설에는 "아나운서 다시 하라!"는 환호가 쏟아졌다.

식사 후 2부 순서는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의 빼어난 진행으로 더욱 다채롭고 정답게 펼쳐졌다.

5, 60년대에 활동한 윤영중(전 KBS), 문복순(전 KBS), 민병연(전 KBS), 성선경(전 DBS), 김규은(전 KBS), 조길자(전 KBS), 김재영(전 MBC), 이혜옥(전 KBS), 이지연(전 CBS) 회원 중 클럽 모임에 처음 참석한 조길자 회원은 "남편을 따라 외국에서 살다

가 돌아와 영어와 스페인어 언어·문화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따뜻한 이 모임에 자주 나오겠다."라고 말했다.

멀리 전북 전주에서 올라온 주건국(전 KBS), 권장수(전 KBS) 회원에게도 큰 박수가 쏟아졌고, 현역인 윤지영(KBS) 아나운서연합회장이 보내온 와인과 송옥석(febc) 극동방송협회장이 들고 온 문학서적 선물은 우리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이 얼마나 가족 같은 관계인지 실감케 했다.

아나운서 출신 박영선 한선교 의원 4선 성공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나운서 출신 4선 국회의원이 나왔다.

지난 4월 13일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로 을 지역구민으로부터 54.13%의 지지를 받은 박영선(전 MBC) 더민주당

의원과 용인 병 지역구에서 42.20%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수성에 성공했다.

박영선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되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표 직무 대행, 재벌개혁특위위원장을 역임했다.

용인 최초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한선교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로농구연맹(KBO) 총재를 지냈다.

아나운서클럽 미주방송인협회 간담회 마련

(사)한국아나운서클럽과 (사)미주방송인협회 간담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열렸다.

황우겸, 박종세(전 TBS) 고문, 김규홍(전 KBS) 부회장 등은 5월 10

일 청목식당 모임에 업무차 모국을 방문한 김정수 전 미주방송인협회 회장을 초청해 유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수 전 회장은 지난 5년간 아나운서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민정, 송현식, 김정수, 김규홍, 맹관영, 박종세, 황우겸, 배덕환

클럽회보를 무료로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발송비를 분담하는 방법을 민병국 현 회장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0여년 역사의 미주방송인협회의 실태와 LA 지역 방송인들의 보람과 애로점

을 이야기해주었다. 이날 모임에는 미주방송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년 전부터 고국에서 지내는 송현식(전 KBS) 회원도 참석해 더욱 화기에애한 자리가 되었다.



창녕 석리 성씨 고가의 중요 건물, 1928년에 지어진 경근당(경남문화재 제355호)에서 성기학 회장(뒷줄 중앙)과 함께

클럽 회원 1박 2일 경남 창녕 여행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초청으로 회원 40명 함께해

아나운서클럽 사상 최초로 경남 창녕 숙박 여행이 이루어졌다. 임국희 회장을 비롯한 (사)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40여 명이 (주)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의 초대로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가야의 고도古都 창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은 영원무역 대구공장 견학에 이어 창녕에서, 국내 최초의 농민자조단체 경화회耕和會의 터전인 경화회관과 국내 최대의 원시 늪우포늪을 탐방하고 창녕 성씨 고가古家에서 묵은 후 국보 제33호인 진흥왕척병비와 가야고분군, 창녕박물관과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았다.

작년 6월 MBC 상암 신사옥 견학에 이어 마련한 이번 여행은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기 2면]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도영, 정연호, 홍승택, 김병래, 전옥수, 박찬순, 황량, 윤영중, 이보길, 성선경, 맹관영, 배유선, 차기정, 임국희, 김재익, 성기학 회장, 전 광주MBC 사장 서경주, 김규홍, 김승한, 송현식, 전 원주MBC 사장 이기호, 김재영, 안종순, 윤희자, 이현우, 남궁미, 춘하추동방송 이장준, 이형균, 전 KBS사우회 부회장 김광일, 이종태, 이후재, 주건국, 안희재, 이혜옥, 조영숙, 박민정, 채영신, 황인우, 이정애, 김규은, 정홍숙

상냥 여행기

“아시안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귀빈들을 환영합니다”

성선경(전 DBS) 부회장



필자

영원무역 대구 공장의 최첨단 설비를 견학하고 섬유연구소 등을 둘러보면서 성기학 회장(오른쪽)의 환대를 받았다. / 가운데가 필자

아나운서클럽 식구들과 함께한 1박 2일 창녕 여행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황우겸, 임택근, 최계환, 강영숙, 전웅덕, 전영우, 박중세, 최만린, 김동건 고문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들은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이 당숙모인 임국희 회장과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버스 두 대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압구정동을 출발했다.

도중에 대전, 청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지역 회원들이 합류, 영원무역 대구 공장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한데 모여 첫 일정을 시작했다. 소탈한 풍모에 호탕한 웃음이 친근한 성기학 회장의 환대를 받으며 인근 현풍할매집에서 공수해온 꼬리곰탕을 먹고, 고가구와 민예품 관람 후 공장을 견학했다. 섬유연구소를 통해 가보고 따듯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숨 쉬는 섬유 원단을 개발해내고, 기계만 있어 텅 빈 듯 보이는 최첨단 설비의 공장이 인상적이었다.

창녕에 도착해서는 먼저 화왕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에 자리한 경화회관으로 이동했다. 성기학 회장의 선친인 성재경 선생이 주축이 되어 1963년 설립한 새마을운동의 전신 경화회의 터전으로, 성기학 회장이 7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1,100평 규모의 회관을 신축, 기증해 오는 5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1909년 성기학 회장의 고조부 성찬영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양파 재배에 성공한 이래 성재경 선생이 한국전쟁 직후 농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보리 대신 환금작물 換金作物로 양파 신농법을 보급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1969년에 6,000여 농가에서 양파를 재배한 이래 창녕이 전국 최고의 양파 주산지라 되었고 이제 양파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되었다.

이어 낙동강 권역 우포늪으로 향했다. 크기리기, 큰고니, 청동오리 등 희귀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생태의

보고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새벽에 안개가 덮인 늪지에 각종 새들이 날아드는 것이 장관이라는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니 기회가 되면 다시 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인 도심을 지나자 발마다 양파를 기다리는 푸른 잎사귀가 고장의 특색을 나타내는가 싶더니, 양파 시베지 표석 뒤로 민속촌 같은 웅장한 규모의 창녕 성씨 고가가 눈에 들어왔다. 1855년 건물인 아석헌을 위시해 1928년에 지어진 경남문화재 제355호 경근당, 임국희 회장의 부군 성대경 교수가 태어나고 자란 청구당 등, 이름하며 ‘아석我石 고택’이다.

성 회장 부친이 설립한 농민자조단체 경화회 터에 초현대식 회관 지어 기증

선대는 양파 신농법 보급으로 창녕을 전국 최고 양파 주산지로 만들어

선물 받은 노스페이스 재킷 걸치고 창녕의 가야고분군과 우포늪 등 둘러봐

여장을 풀고 30여 채에 달하는 고풍스러운 한옥과 정자, 정원, 연못, 동산, 대숲 등을 둘러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선조들의 유지를 이어가며 전통한옥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복원해 창녕의 유적지로 만든 성기학 회장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이번 창녕 여행에 유난히 흥미를 가졌던 것은 나도 창녕昌寧 성가成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할아버지는 충청도 쪽에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사신 양반 가문 출신이지만 여러 마님들을 두고 술 마시며 일없이 지내 막상 자식과 손주들이 공부할 때는 뒷받침을 못해주셨다. 게다가

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 제일 잘 산다 싶었는데 재산 물려준 큰아들네는 안 가시고 둘째부인 소생인 우리 집에서 모시게 해 어머니 고생시키던 게 생각나 성가成哥에 대한 인상이 별로였다. 그러다가 창녕에 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또 다른 뿌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나에게 더욱 뜻 깊은 여행이었던 것 같다.

저녁이 되자 창녕의 맑은 공기 속에 아름다운 불빛이 영롱이는 파란 잔디밭에서 만찬이 펼쳐졌다. 쌀쌀했지만 오랜만에 동화의 주인공이 된 듯 모두 푸른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고기 판에 불을 지피니 가든파티를 하기엔 너무나도 적당한 날씨였다.

우리는 아나운서클럽의 역사적인 1박 2일 여행에 일체의 편의를 제공해주신 성기학 회장님께 감사패도 드리고, 임국희 회장의 팔수를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담소를 나누고 사업에 지친 피로감을 잊은 듯 즐거워하시는 성기학 회장의 모습에 미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내 집에 온 듯 한마음이 되어 모두 ‘영원무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를 외치며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급 한우구이를 맘껏 먹으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도대체 임국희 회장은 저렇게 당당하게 종질從姪로부터 이런 극진한 대접을 우리에게 베풀게 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친척이라도 성가成哥 남자들의 성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아는 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진보학자며 아들은 의사, 딸은 대학교수로 잘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은퇴한 아나운서일 뿐인데...’ 싶어 고개가 가우뚱해졌다.

식사 후 지하 연회장에서 이종태(전 KBS) 회원의 명품 사회로 여행이 이어졌다. 아나운서들의 노래는 수준 이상이었다. 긴 시간 함께한 성기학 회장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우리들은 둘씩, 셋씩 배정받은 한옥에 들었다.

숙소에서는 구석구석까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포근한 이부자라도 준비되어 있었고 보일러로 가동하는 뜨끈한 방바닥은 추워서 움츠렸던 몸을 녹이기에 적당한 기온을 유지해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

이튿날 연회장에서 갈비탕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성기학 회장님께 선물 받은 노스페이스 윈드재킷을 걸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야시대부터 번성했던 창녕의 면모를 살피러 나섰다. 창녕박물관과 가야 고분군, 국보인 진흥왕척경비를 둘러본 후 맛있는 가야산 산채정식을 먹고 도착한 곳이 팔만대장경이 있는 그 유명한 해인사!

다리를 저시면서도 꼭대기 장경판전까지 올라갔다 오신 운영중 선배님을 비롯해 낙오자 없이 관광을 마치고, 중학교 졸업 여행을 이곳에 와 철없이 날뛰던 아련한 옛 추억을 더듬어보았다. 늙어간다는 것이 서글프지만 때로는 보람의 시간이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며 우리가 갈 아름다운 분향의 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임국희 회장과 정성껏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 그리고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수고해 주신 영원무역 직원들과 우리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애써주신 김규홍 부회장을 비롯한 운영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래, 우린 영원한 아나운서야!



동화의 주인공처럼 푸른 담요를 두르고 즐긴 고택 야외 만찬



임국희 회장이 회원들을 초청해 준 성기학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창녕 만옥정공원에 있는 국보 제33호 진흥왕척경비도 보았어요



제2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CBS 이명희 아나운서 <이명희의 랄랄라> 매일 오전 11시 ~ 12시

이명희 아나운서는 1990년 입사 이래 라디오 <가정저널>, <행복한 책임기> 등 교양,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FM 매거진> 등 음악, <뉴스 레이다>, <좋은 아침 이명희입니다> 등 시사, <8585퀴즈쇼>, <이명희 박재홍의 상상심> 등 오락, TV <새롭게 하소서>, <新사도행전> 등을 맡아온 전전후 진행자이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프로야구 캐스터로 활약했고, 2006년부터 3년간 아나운서부장을 지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1997년에 CBS 면려상, 1999년 아나운서클럽상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남극 세종기지 실종대원 구조에 대한 신속한 보도에 기여한 공로로 CBS 역사상 아나운서로서는 유일하게 사내 특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에는 <8585퀴즈쇼>로 CBS 사내 '올해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 진행한 <이명희 박재홍의 상상심>은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5년 9월부터 CBS 표준 FM에서 <이명희의 랄랄라(매일 오전 11시~12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음악 채널 <조이포유>에서 <이명희의 찬양의 숲(매일 오후 4시~6시)> DJ로 활약 중이다.

더 넓고 깊이 있게 메아리 칠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나운서가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것만 같고, 여전히 진행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여전히 뉴스 하면서 안 되는 날엔 쥐구멍에 숨고 싶은데... 어느덧 아나운서가 된 지 이십여 년이 지났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두루 진행해보기도 했고, 선배들보다 후배들 기수가 더 많이 헛갈리는 위치에 와있네요.

영원할 것만 같던 시간이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것도 알고, 한 해가 시작하면 금세 연말이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여전히 방송은 나에게 꿈인 것 만 같고 어렵고 가슴 떨리는 대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반응해주는 청취자들 덕에 웃고 울면서 이게

행복이지 싶은데, 그러면서도 방송은 끝이 없다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방송을 가슴 설레는 속제로 겸허히 받아들이셨던 선배님들의 충고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격려해주시는 상이 벅차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에 빠져서 하는 게 진짜 방송이야. 그렇게 앞으로도 가면 돼.' 하고 등 두드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과거의 사건들은 오로지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기억이란 상상의 한 형태다.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에는 현실이지만, 일단 '그때'가 된 후라면 그 현실성을 지속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의 정력과 정직성에 달린 것이다. - 어슐러 르 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명희의 랄랄라>는 7080 포크 음악을 위주로 하는 방송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음악, '그때'의 추억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미소 짓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된 음악과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고, 살아가고 사랑할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매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나운서의 길을 열고 닦아가신 고마우신 선배님들의 격려가 정말 감사합니다. 황금메아리상을 주셨으니 더 넓고 깊이 있게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BS 메인 뉴스 진행 관계로 미리 와 수상한 흥원기 아나운서를 격려하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OBS 김준우 아나운서, 채영신 편집위원, 흥원기, 김규홍 부회장, 이해옥 편집위원, 황인우 편집장, 박민정 사무총장, 임택근 고문, 임국희 회장, 황우겸 고문



OBS 흥원기 아나운서 <OBS초대석>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 8시

2001년 GTB강원민방에서 아나운서로 입문한 흥원기 아나운서는, 2002년 iTV경인방송을 거쳐 2007년 OBS가 개국하며 입사했다. 개국 초기에 1년간 <흥원기의 파워토론>이라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로 주목을 받았고, <독특한 연예뉴스>, <생방송 OB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아왔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메이저리그 독점생중계>의 캐스터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아나운서팀장으로서 OBS의 메인 뉴스인 <뉴스M(월~토 오후 7시 45분~8시 30분)>의 앵커로 활약 중이며, 2011년 대한민국아나운서대상 TV진행상을 수상했다.

흥원기 아나운서는 2013년 5월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OBS 초대석(토 07:00~08:00)>의 MC를 맡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안정적 진행으로 초대 손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끌어내며 프로그램을 빛내고 있다.

시청자를 무서워 하면서 진심이 전해지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황금메아리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구나 만들어 주신 지 이제 두 해째인데 제가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선배님의 따뜻한 전화를 받고 과연 제가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이 시청자에게 메아리를 줄 수 있는 방송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한길을 걸어 왔습니다. 시청자를 무서워하면서 단 한 사람의 시청자가 듣고 보고 있어도 진심이 전해지는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청자는 우리 아나운서클럽 선배님들처럼 그야말로 흰히 진행자들의 능력과 진행 상황 상황을 꿰뚫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어려서부터 TV를 통해 뵈고 존경해마지 않던 선배님들께서 상을 주신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제 부족한 방송 실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상의 이름이 황금메아리라니요! 평생 가장 의미 있고 따뜻한 상을 받게 되는 듯합니다.

2001년, 아나운서 선배가 하나도 없는 개국하는 방송사의 신입

사원이던 저는 동기 한 명과 타방송사로 파견교육을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절 모든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제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을 보며 아나운서로서 태를 익히고 격을 갖추고 능력을 갈고 닦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못난 완벽주의(?) 탓에 과도한 방송 준비를 한 적도 있었고, 방송에서 나온 실수에 자책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는 자신을 느끼며, '아 이게 내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즐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신 <OBS초대석>은 제게 보람을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녹화 전 긴장감이 역력하던 출연자가 녹화를 마친 뒤 "편안하게 이끌어줘서 고맙다."라며 꼭 다시 출연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일 때는 진행자로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신 이 상의 의미를 '진정한 황금메아리를 퍼트리는 방송을 하라'는 선배님들의 준엄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더 정진하는 아나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방송터 기념식 방우회 주최로 정동 덕수초에서 열려

첫 방송 터 기념식이 (사)한국방송인동우회(이하 방우회) 주최로 서울 정동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렸다. 4월 23일 오전 11시에 거행된 기념식에서 한영섭 방우회장, 서중환 문공회장을 비롯해 아나운서클럽 황우경, 강영숙, 전영우, 박종세, 최만린 고문, 김규홍 부회장, 엄복영, 이해옥, 이보길, 채영신 회원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유허비를 바라보며 한국 방송의 발전을 기원했다.

1927년 2월 16일 JODK라는 호출부호로 첫 전파를 발사한 경성방송국은 해방 후 중앙방송국 연주소로 사용되다가 6.25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방우회가 1987년 9월 한국 방송 60주년을 맞아 서울시 중구 정동 1번지에 KBS 아나운서 출신의 조각가 최만린 당시 서울대 미대 교수에게 의뢰해 유허비를 세우고, 매년 봄 방송 선인들의 얼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아나운서클럽 최만린 고문이 사재를 털어 건립한 유허비(사진 상단 우측)를 바라보며 거행한 첫방송터 기념식(제공: 춘하추동방송 이장준)



방 | 송 | 가 | 소 | 식



부사장 직속으로 조직 개편 김관동 실장, 김성은 1부장 임명



김관동 김성은

KBS가 5월 23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편성제작본부 소속으로 방송에 참여하던 아나운서실은 부사장 직속 기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전임 유애리 실장(8기)에 이어 김관동 아나운서 1부장(14기)이 새 실장이 되었고, 공석이 된 아나운서 1부장엔 김성은 아나운서(19기)가 임명되었다.

프로그램 부분 조정

1TV <뉴스 타임> 정다운(34기), <뉴스 12> 이재홍(25기), <주말 뉴스 9> 이슬기(38기) 등이 새 진행자가 되었다. 제2라디오 <음악이 있는 풍경>의 이정민(31기), <밤을 잊은 그대에게>의 강서은(41기)과 함께 최시중(23기) 아나운서가 신설 프로그램인 <0시의 가요무대>를 맡았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2016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 너를 사랑해, 우리가 같이해'라는 주제로 5월 17일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KBS 아나운서실이 주관한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사업 올해 첫 강의는 서울 여의도중학교에서 이승현 아나운서가 담당했다.

대구삼육초 5학년 정가희 양 '어린이 말하기 왕'으로 뽑혀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말하기 왕 선발대회'가 5월 4일 KBS 본관에서 열려 대구삼육초등학교 5학년 정가희 어린이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KBS한국어 포스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접수한 191명의 응모자 중 15명이 말솜씨를 뽑낸 본선은 myK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은영 2016이화언론인상 수상

4월 27일 '올해의 이화언론인상'을 오애리 뉴시스 국제부장과 함께 수상했다. 2007년 입사한 박은영 아나운서는 <연예가 중계>, <TV쇼 4총사>, <비타민> 등에서 활약하며 2013년 KBS 연예대상 쇼오락부문 여자 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제2라디오 <당신의 아침 박은영입니다>를 맡고 있으며, 6월 6일부터 제3라디오 <마음건강 프로젝트-토닥토닥 마음정비소>를 진행하고 있다.



새 얼굴 신입 아나운서 선발



김민형, 엄주원, 김준상, 정다희, 안주희, 정슬기 (왼쪽부터 시계방향)

4월 4일 3년 만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엄주원(30세), 김준상(29세), 정슬기(27세), 정다희(26세), 안주희(24세), 김민형(23세) 등 6명이다. 이들은 한 달간의 집중 교육 후 <생방송 오늘 아침> 리포터와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로 출연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이재은 메이저리그 중계

4월 9일 토요일부터 매주 코리안 메이저리그 소속팀 경기를 생중계하는 <MLB 라이브 2016>를 편성했다. 이재은 아나운서가 4년 동안 메이저리그를 현장 취재한 경험으로 여성 캐스터로서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말 나들이 특집방송 '안녕! 우리말'

2013년과 15년에 이어 5월 2일부터 60회에 걸쳐 부모와 자녀의 소통 장벽 문제를 다룬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기획, 최대현 아나운서 연출, 이재용 아나운서 진행으로 매일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4시 55분, 두 차례 방송된다.



라디오 봄 개편

라디오 개편을 맞아 4월 첫 주부터 아나운서들의 DJ 투입 및 시간대가 변경되었다.

107.7 파워 FM에서는 <배성재의 텐(22:00~23:00)>과 <조정식의 FMzine(04:00~06:00)>, 103.5 LOVE FM에서는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토, 일 06:05~07:00)>, <정석문의 섹션 라디오(토, 일 07:10~08:20)>가 시간대를 옮겼다.

김환 <2016 희망 TV> 진행



대한민국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 <2016 희망 TV>가 새 진행자를 만났다. 최기환 아나운서에 이어 김환 아나운서가 배우 이정진, 김민정과 공동 진행하며 즐거운 기부문화를 창조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나눔 방송을 실천한다.

기존의 나눔 토크쇼와 함께 '아프리카 희망학교 VR 체험전'과 '기아체험 가족캠프'로 구성된 5월 27일, 28일 방송을 통해 2016년 상반기에만 정기 후원 약 8천 건과 기부금 56억 원을 약속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손범규 호서대서 취업 특강



홍익대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손범규 아나운서가 5월 13일 충남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나운서, 방송,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1995년 입사한 손범규 아나운서는 한글학회 우리 말글 지킴이, 국립국어연구원 표준어 심의위원, 호서대학교 겸임 교수,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을 지냈고, 한국어문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대와 여는 아침> 4집 앨범 발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출근길 유일의 POP 음악 프로그램 <CBS 그대와 여는 아침-김용신입니다>에서 네 번째 앨범이 출시되었다.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많은 사랑으로 큰 성공을 거둔 컴필레이션 <그대와 여는 아침> 1, 2, 3집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네 번째 음반이다. 팝 전문 프로그램과 청취자가 함께 보증하는 <그대와 여는 아침>이 엄선한 곡들은 기분 좋은 아침, 상쾌한 출근길의 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4월 25일 표준FM 개편



그동안 저녁 시간에 <오늘 하루>를 진행하던 박재홍 아나운서(사진)가 아침 시간대 표준FM <굿모닝 뉴스 박재홍입니다(06:00~07:00)>에 투입되었다. <오늘 하루(20:00~21:00)>는 장주희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주말N(토, 일 18:20~20:00)>은 김윤주 아나운서 대신 김덕기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김윤주 아나운서는 신설 프로그램인 음악FM <thank you for the music(02:00~04:00)>을 진행 중이다.

아나운서 강의 대학에서 인기



아나운서들이 대학에 출강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지혜 아나운서(사진)가 중앙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 입문>을 가르치고, 김용신, 박재홍 아나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말하기와 토론>을 강의하고 있다.



4월 25일 봄 개편



왼쪽부터 신미정, 최지혜, 조은유

시청 경쟁력 확보, 지역 밀착 시사정보 프로그램 강화를 목표로 한 봄 개편에서 신규 <엠플의 전쟁, 엠플>, <북으로 세상을 통하다-북세통>, <경인 봄>, <다큐도전> 등을 편성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되는 <엠플의 전쟁, 엠플(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증 프로그램으로 3인방 아나운서가 매회 주제와 관련한 앱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와 예능을 넘나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진행으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저녁종합뉴스 <OBS 뉴스M 경기-인천>이 저녁 7시 40분에서 7시 45분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다른 주요 뉴스 시간도 5분 늦춰 45분대에 편성했다.

<정말로> 방통위 바른방송언어상 수상



홍원기, 윤정식 사장, 신미정

신미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정말로>가 5월 2일 열린 제8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부문 '바른방송언어상'을 수상했다. <정말로>는 OBS 창사 이래 9년간

아나운서팀이 기획·제작하는 우리말 정보 프로그램으로, 언어의 오·남용이 점차 심해지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우리말과 바른 방송언어를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디오 봄 개편, 아나운서도 제작 참여



4월 18일 봄 개편을 맞아 소외 계층을 위한 친교 나눔 프로그램과 아나운서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매일 오전 11시5분 올드 팝과 영화음악으로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신의석의 11시가 좋다>, 평일 4시 봉사과 교육, 신앙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코이노니아>는 김현주 아나운서(사진)가 진행한다. 조한구 아나운서가 매일 오후 8시 <김도향의 명동연가> 제작을 맡았고,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조한구 아나운서가 제작했던 <라디오 피정>은 김지현 아나운서가 연출한다.

tbs TV 4월 4일부터 봄 개편



봄 개편으로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공연 프로그램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가 신설되었다. 정연주 아나운서(사진)와 뮤지컬 평론가인 순천향대 원종원 교수가 뮤지컬과 연극·콘서트 위주로 다양한 공연 문화를 소개한다. 화요일 오후 1시 <5분다큐 사람>에서는 인간미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방송된다. 또 하루 8시간 뉴스 생방송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뉴



스를 전하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무료 입시 상담도 마련했다.

아나운서부 파주서 <우리말 세미나> 개최

tbs 아나운서부 우리말 세미나 겸 단합대회가 6월 18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다. 방송언어에 관한 토론과 앞으로 tbs아나운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함께 참석한 가족들과 업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화합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4월 25일 봄 개편 단행

창사 60주년을 맞아 4월 25일부터 방송 프로그램 봄 개편을 실시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사는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이라는 주제 아래, 신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새로운 코너와 다채로운 구성을 청취자들에게 선보였다.

창사 60주년 어린이날 가족사랑 큰잔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창사 60주년 기념 '가족사랑큰잔치'를 열었다. 오후 1시 아이들을 위한 놀이마당에 이어 2시부터는 '나라사랑 평화 음악회' 공연이 6월 24일(현지 시간) 뉴욕 카네기홀에서 극동방송 11개 지사 어린이합창단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관객들은 어린이합창단의 하모니와 퍼포먼스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극동방송에 행복한 수상 소식 이어져



서울 송옥석 아나운서가 <탈북청소년 특집-먼저 온 우리의 미래>로 5월 2일 열린 20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라디오부문 우수상을 받았다(사진). 또 <ROK PC-701,백두산>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중) 주최 2016년 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3월 29일 상을 받았다. 울산 장대진, 강세영, 이서진 아나운서가 공동 제작한 <죽음과 사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한국PD협회 주최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불교방송 개국 26주년 기념식



세계 최초 불교 지상파 방송 BBS불교방송 개국 26주년을 맞아 5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은경 아나운서부장의 사회로 개국 26주년 기념식-세상을 맑고 향기롭게-을 열고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하겠다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또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불교방송에서는 5월 7일 열린 연등회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라디오와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했다.

아나운서 PD 1인 제작 시스템 구축

'1인 제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아나운서실 조한구 실장과 김현주, 김부궁 아나운서가 PD 부서 교육을 실시했다. 발성과 발음, 원고 전달법 등을 익힌 PD들은 봄 개편 후 매일 자정부터 <당신을 위한 BGM>을 제작·진행 중이다.

김지현 아나운서 우수사원상 수상



5월 10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임원 사제단이 집전한 미사 후 거행된 시상식에서 김지현 아나운서가 우수사원상을 수상했다. 김지현 아나운서는 TV <PBC 뉴스>,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군중의 시간> 진행, <라디오 피정> 제작과 <우리말 바른말> 구성을 맡고 있다.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12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한 나라의 문화는 수직/전통문화와 수평/외래문화가 짝 짜늘과 날줄의 교직물交織物과 같다. 모든 나라의 국어 역시 수직/고유어와 수평/외래어의 총화이다. 한국어는 대체로 "한자어(70%)+고유어(24%)+외래어(6%)"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한자어는 일찍이 2천 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이 안 되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民主 국가일 뿐 서로 화합하는 공화국 共和國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예로부터 천여 번의 외침을 당한 마음의 상처에서 온,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DNA로 인한 국민성 때문이 아닐까. 해방 이후 국어학계 역시 한글 전용주의자와 한자 혼용주의자간의 문자 전쟁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간단한 사람의 성씨를 예로 들어보아도 정:鄭/정丁, 조:趙/조曹, 변:卞/변邊, 유:柳/유劉·俞, 신:愼/신申·

辛처럼 분별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인 중국을 다녀와서 연 기자회견 말미에 한자 병기併記를 관계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적이 옳다고 보아 2018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3백자 전후의 한자를 병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저런 이유로 유보 상태이다.

필자는 한글 전용주의자나 한자 혼용주의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다. 두 가지 예문을 들어본다.

- 1 모든 전쟁의 원인에는 근인과 원인이 있다.
- 2 모든 戰爭의 原因에는 近因과 遠因이 있다.
- 3 모든 전쟁의 원인에는 近因과 遠因이 있다.
- 1 야구에서 선발투수는 감독이 경기 전 날 선발한다.
- 2 野球에서 先發投手는 監督이 競技前 날 選拔한다.
- 3 야구에서 先發투수는 감독이 경기 전 날 選拔한다.

이 두 문장에서 1은 한글 전용주의자의 글이고, 2는 한자 혼용주의자의 문장이다. 1의 글은 뜻을 정확히 알 수

漢字는 이미 韓國化된 韓字이다 I

- 漢醫學도 1970년부터 韓醫學으로 바뀌었다 -

없고, 2는 필요 이상으로 한자가 많아 독서의 효율이 떨어지며 표준발음 표시도 없다. 필자의 주장은 3처럼 변별력을 주는 경우에만 한자를 쓰자는 것이다.



서양의 언어 표기 수단인 Roma字 Alphabet은 어느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서양의 문자일 뿐이다. 한자의 연원은 우리의 옛 조상인 동이족東夷族이 창안했다는 새로운 학설이 정설定說로 굳어지고 있다. 한자는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글자로 보아야 한다.

2013년 한·중·일 세 나라 인문·국어학자 30명(한국 대표 이어령, 주관 한국관광공사·중앙일보)이 두 차례의 회의 끝에 공동 상용 한자 808자를 선정할 바 있다. 세 나라 문화의 공통분모는 한자 문화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자는 한·중·일 세 나라의 정신문화를 이어주는 Beseto Belt(Beiging/Seoul/Tokyo)라고 한다.



회 | 원 | 동 | 정



<가요무대> 브라질 녹화 다녀와

김동건(전 KBS) 고문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6월 3일부터 12일까지 <가요무대> 녹화차 브라질을 다녀왔다. 한편 김 고문은 3월 30일 서울 선릉 포스코센터에서 존경하던 고(故)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을 기리는 제10회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사회를 보았다.



한국방송신문연합회장 선임

이보길(전 TBC)

4월 20일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회원은 1967년 TBC 아나운서로 입사 후 1973년에 기자로 전직했다. 언론통폐합 후 KBS 라디오 앵커와 해설위원을 거쳐 2001년에 정년퇴직했다. 이어 2007년까지 전문위원으로서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특임강사를 지냈다.



평창올림픽 외신 대변인 선임

유지현(전 SBS)

5월 15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외신 대변인에 선임되었다. 회보 편집위원이기도 한 유 회원은 인천아시안게임 해외 언론홍보 담당,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KBS N 스포츠 전문위원으로 활동

김성길(전 KBS)

올 3월부터 한국체육대학 사회체육대학원 외래교수, 5월부터 KBS N 스포츠 전문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1985년 입사한 김 회원은 편성실, 스포츠국, 대구세계육상기확단장, 인천아시안게임기확단장을 끝으로 2013년 정년퇴직 후 인천아시안게임 주관방송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결혼가정문화진흥협회 6월 27일 창립 기념식 개최



정경수(전 MBC)

결혼·출산 장려 및 행복 가정 운동을 벌이기 위해 한국결혼가정문화진흥협회(MFCA)를 창립하고 오는 6월 27일(월) 오후 6시 서울시 대치동 상제리제센터 A동 피에스타 귀족 2층 컨벤션홀(문의 02-501-7000, 010-6237-8540)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 회원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MBC 근무 후 교통방송 시청자위원장,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을 지냈다.

JC특우회 후배들로부터 미리 미수米壽 축하 받아

황우겸(전 KBS) 고문



왼쪽부터 장태수, 조남인, 황인우, 이계진, 권경애 여사, 황우겸 고문, 박민정, 김규홍

5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JC특우회 우정의 밤 행사에서 오는 11월의 미수연을 앞당겨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JC특우회 제2대 회장을 지낸 황 고문은 부인 권경애 여사와 함께 서울지구특우회 이종찬 회장, 서울 JC특우회 조남인 회장 등 많은 후배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아나운서클럽에서는 특우회 회원인 김규홍 부회장을 비롯해 이계진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황인우 편집장이 참석했다.

제주대서 '당신의 말이...' 강연

유정아(전 KBS)



5월 18일 제주대학교에서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하다' 강연

서울여대에서 강연



손미나(전 KBS)

4월 26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주도적인 삶'을 주제로 강연

OtvN <프리한 19> 진행

5월 9일부터 OtvN <프리한 19> 진행



전현무(전 KBS), 한석준(전 KBS), 오상진(전 MBC)

광주매일아카데미서 강연

이숙영(전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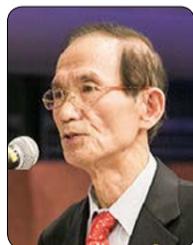
5월 17일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에서 '맛있는 대화법' 강연



유리디체아카데미 창립 7주년 맞아

정흥숙(전 MBC)

유리디체아카데미 창립 7주년을 맞아 6월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바리톤 임준식의 축하, 음악평론가 선병철 지도교수의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DVD 콘서트, 저녁식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제36회 차의 날 행사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

전우벽(전 KBS)

(사)한국차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5월 25일과 26일 '제36회 차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차의 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이틀간 열려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황씨중앙종친회 정기총회 사회

황량(전 KBS)

4월 30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린 한국황씨중앙종친회 정기총회 사회를 보았다. 황 회원은 1974년 입사, 군산방송국장, 심의위원을 거쳐 2003년 정년퇴직했으며 현재 클럽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금수 초청 평화음악회 사회

채영신(전 KBS)

6월 13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작곡가 임금수 초청 제6회 평화음악회 사회를 보았다. 한편 채 회원은 지난 3월 18일 제26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중신이사에 선임된 바 있다.



지구촌나눔 한마당축제 개막행사 사회

신영일(전 KBS)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한 '2016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의 개막행사로 5월 7일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서울365 패션쇼' 사회를 보았다. 1997년 입사, 2007년 프리랜서를 선언했으며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제7주기 추도식 사회

박혜진(전 MBC)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사회를 보았다. 박 회원은 2001년 입사해 <뉴스데스크>, <성공의 비밀>을 진행했으며 2014년 퇴사했다.

Zoom-in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이사장

하도 일이 많아서 누가 물으면 ‘공부 빼고 청소년 활동 다 한다고 말해요’

선임된 지 2달여, 인기 절정의 아나운서에서 대학교수를 거쳐 차관급 공직자로 변모한 신은경 이사장을 만나러 지난 5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청소년진흥원을 찾았다. 독립문역에서 충정로역을 갈 때 마을버스로 지나치던 한적한 이면도로에 위치한 그곳에서 신 이사장은 모란 같은 화사함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있었다.

글 / 황인우(전 KBS) 편집장

청소년의 달을 지내며 각오가 새로울 것 같다.

저를 만나는 분들 모두 일단 반가워하고 신뢰해주시니 참 고맙지요. 청소년활동진흥원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환경은 어떤 편인가?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총인구와 청소년 인구 전망> 표를 보면, 2015년 인구 50,617,045명 중 청소년은 9,609,808명으로 19.0%를 차지합니다. 총인구 대비 36.8%였던 1980년을 정점으로 지금은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요. 2020년엔 16.3%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청소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법부터, 저희 같은 전문 기관, 청소년 학과 개설에 육성기금, 청소년지도사 등등 바탕이 잘 갖춰져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경기도 포천을 오가며 바쁘게 보낸 걸 잘 알고 있다.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나?

차의과대에 출강하느라 먼 길 오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가까워 정말 좋아요! 하지만 5월이 청소년의 달인 만큼 행사가 너무너무 많지요. 충남 천안과 평창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과 전남 고흥 우주체험센터, 경북 영덕 해양환경체험센터, 전북 김제 농업생명체험센터 등 5군데 산하 시설 시찰은 물론이고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볼거리, 직업체험, 미래 사회 전망 등 모든 활동을 망라해 제1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열렸었거든요. 15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간 큰 행사를 주관하느라 참 분주히 지냈습니다.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행사가 이어지니 쉴 겨를이 없지만, 생각 외로 ‘바쁘면 피곤하다’가 아니더라고요.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해 소개해달라.

2010년 8월에 청소년수련원과 수련센터가 합쳐져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다. 영어 약자는 KYWA(Korea Youth Work Agency)인데, ‘Youth work’가 봉사, 참여, 진로를 위한 활동을 뜻하는 사회과학적 전

문용어로 쓰입니다. KYWA는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큰 판’을 만들어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요. 지식, 지혜, 건강을 갖추고 균형 있게 자라며 재능을 발굴하고 세계의 친구도 만나며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누가 물으면 ‘공부 빼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것을 다룬다’고 말하지요.

그간의 경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을까?

1981년 KBS 공채 8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영국 유학 가기 전인 1992년까지 줄곧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후반 5년간 주말 뉴스 단독 앵커를 맡았었지요. FM 음악방송을 진행한 것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러고는 웨일즈대학에서 저널리즘 박사학위 취득 후 결혼해 남편(KBS 앵커 출신 박성범 전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뒷바라지했지요. 중구 신당동에서 동네 청소년을 위해 만든 (사)청소년문화마을 이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포인트를 두고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강단에 서고 동기 부여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최근 3년간 차의과대에서 2013년에 신설한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로 재미있고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과 같이 지낸다는 게 좋았고, 늘 관심이 많았지요. 차의과대에서 글로벌경영연구원장을 맡아 최고 지도자 과정을 운영해본 경험도 한 몫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청소년활동진흥원장을 공모한다기에 지원했지요. 자연스럽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공직사회에 외부 전문가로 영입되었는데, 포부는?

저희 진흥원이 발전하는 기회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이 알려진 사람을 기용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홍보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저긴 뭐 하는 덴가?’ 했다고 하셨지요?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



는 게 당면과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적성을 파악해 적절한 직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비전을 갖고 크게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관심을 받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체험센터를 활용해 청소년을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체험활동도 문화예술 쪽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날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특강하는 걸 관심 있게 들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특히 우리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먼저 꿈이 있다면 훗날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바라는 것을 꼭 글자로 써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말하기를 강조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요. 특히 요즘 청소년의 거친 언어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잖아요? 저는 ‘말의 힘’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말하기를 다듬어주고 싶어요.

내가 아나운서였다는 게 미리 준비를 시켜주신 게 아닌가 싶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아나운서 선배님들과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 후반전의 사명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통해 변화된 삶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6월 10일까지 입금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변웅전(전 MBC) 30만 원



김창욱(전 MBC) 30만 원



김규은(전 KBS) 30만 원



차기정(전 CBS) 30만 원



변순복(전 SBS) 30만 원



이지연(전 CBS) 50만 원



한선교(전 MBC) 100만 원

축하합니다

- 안희재(전 KBS) 8월 20일(토) 12시 30분 신라스테이 역삼 마리 드 블랑에서 아들 문경록 군 혼사
- 김채영(전 MBC) 6월 26일(일) 오후 5시 반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딸 김선희 양 혼사
- 강주연(febc) 5월 12일 득남
- 배성은(febc) 5월 11일 득남
- 진가희(febc) 5월 7일 연구원과 혼인
- 이영혜(전 SBS) 4월 23일 딸 김희영 양 혼사
- 전주리(KBS) 4월 23일 한의사와 혼인
- 박창현(MBC) 4월 23일 미술학원 원장과 혼인
- 김초롱(MBC) 3월 11일 득남

조의를 표합니다

- 변순복(전 SBS) 4월 24일 부군상
- 최화숙(전 MBC) 4월 23일 시부상
- 박기홍(부산MBC) 3월 27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 장승철 4월 30일 CBS 정년퇴직
- 차다혜 3월 14일 KBS 퇴사

특별 기고

5·16 첫 방송, 55년 전 그 날은

권총 위협 끝에 5시 뉴스 대신 행진곡과 함께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5.16 월기 취지문 읽어



박종세(전 TBC) 고문

약력: 1935년 경기도 장단 출생,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졸업, 1956년 KBS 입사, 1963년 DBS 동아방송, 1964년 TBC 동양방송, 1980년 방송통폐합으로 KBS 방송주간으로 재직하다 1981년 퇴사 후 해태타이거즈 단장, 코레드 대표, 아시아컴 회장, 아나운서클럽 제5대 회장 역임. 현재 문영학원 이사장, (사)한국방송동우회 부회장, 1972년 '5.16 민족상'(사회 부문) 수상, 1980년 방송대상(해설 부문) 수상, 2004년 회고록 '방송, 야구, 나의 삶' 출간

1961년 5월 16일, 5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라일락 꽃 향기가 유난히 진하던 늦봄,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전 날 야구 중계방송을 마치고 복귀해 지친 몸으로 밤 방송까지 끝낸 나는 새벽 1시에 3층 숙직실로 올라갔다. 그 날 남산 KBS 숙직자는 프로듀서 박종민, 음악 프로듀서 도상보, 기자 김기주, 기술 한영식, 임시현, 아나운서 박종세, 송영규 등 7명. 그 중 연장자는 도상보 PD였지만 방송국 직급으로는 26세의 내가 야간 당직 책임자였다.

새벽 4시경, 정문 수위가 다급한 목소리로 깨워 현관으로 내려가니 헌병들이 깔려 있었다. 책임자 말이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김포에서 진격하고 있다. 서울에 오면 방송국을 접수하려 할 것이니 지켜주러 왔다.”는 것이었다. 걱정에 휩싸인 채 10분쯤 지났을까, 헌병들이 서둘러 빠져나가더니, 채 5분도 안 돼 얼룩무늬 군복의 공수부대 장병들이 들이닥쳤다. 일제히 총을 쏘아대는 요란한 소리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하늘을 향한 총구銃口가 돌격 명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엔 온몸이 벌집이 되는 듯 지레 죽을 지경이었다.

숙직자들은 수색 중대장 출신 도상보 PD를 따라 1층 보도국 안에 있는 텔레타이프실로 피신했다. 6.25 때 납치되었다는 윤용로, 전인국 선배들 이름이 떠올랐다. 얼마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거기 박종세 아나운서 있습니까?” 하며 나를 찾았다.

정중한 목소리에 안도하고 따라나선 나는 2층 계단 앞에서 별 두 개인 장성과 마주쳤다. “박종세 아나운서입니까? 나 박정희라고 하오.” 하며 악수를 청한 박 소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5시 정각에 방송해달라면서 전단을 내밀었다.

쪽 훑어보니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 명의의 격문이었다. 일단 북한군이냐 정체불명의 군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과거 정치인들이 쓰던 관념적 용어에서 벗어난,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은 레지스탕스 부대장 같던 박 소장 조카사위, 김종필 예비역 중령이 썼다고 한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박 장군님이 직접 방송하시고, 제가 소개

멘트를 하면 어떨까요?”라고 했지만, 박 소장은 단호하게 “박 아나운서가 하시오.”라고 말했다. 나중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말하기를, ‘무엇보다 국민이 편안하게 듣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아나운서가 낭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거사군 쪽에서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국 안에 엔지니어가 없다는 사실에 난감해진 나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 방송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웅진 중령이란 자가 “방송 못 하면, 당신 죽을 줄 알아.” 하며 권총을 장전하지 않는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나는 현기증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4시 55분쯤 극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돌아왔다. 명동으로 피신했다가 ‘방송은 내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돌아온 그들이 구세주 같았다. 남산연주소에서 아리랑타령으로 연희송신소와 연락을 하고 애국가에 이어 5시 정각에 첫 방송이 송출되었다. 다른 점이라면 방송 시작 30분 전에 보내야 할 아리랑이 5시 직전에 울리기 시작했고, 뉴스가 아니라 7호 스튜디오에서 행진곡과 함께 5.16 월기 취지문이 낭독되었다는 것이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미명今朝未明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꺾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점차 평온을 되찾고 담담한 목소리로 6개항의 공약을 읽어 내려갔다. 그 날, 숙직 아나운서는 둘이었지만 방송 담당 이석재 중령(전 감사원장)이 나만 방송하라고 지시해, 송영규 아나운서는 보조 자리에서 행진곡 등 음악을 틀거나 콜사인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나 이외에 그 당시 숙직자 모두 고인이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르다. 그 분들이 그립고, 명복을 비는 바이다. 그리고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오며 너무나 큰 행운을 주신 하늘과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매니큐어 화가 서금랑 제140회 영상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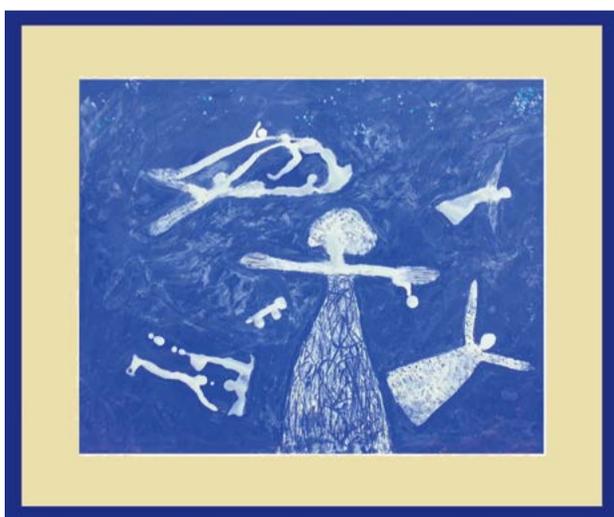
미술사에도 없었던 창의성 넘치는 작품

서금랑 회원(전 KBS)의 매니큐어화 인터넷 전시가 제140회를 앞두고 있다.

아나운서클럽회보 제14호 ‘줌인’에서도 다루었듯이, 2014년 3월부터 2년여간 서금랑(silktide211@hanmail.net) 회원이 번뜩이는 직관과 빠른 손놀림으로 그려낸 2,000여 점의 순수 회화 작품은 국내외 화단과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사)한국방송인동우회 이장춘 이사는 부군인 이정부(전 KBS) 회원이 제작한 동영상 작품집을 보고 ‘고통 속에서 꽃피운 세계 초유의 회화 작업’이라며, 춘하추동방송 블로그(<http://blog.daum.net/jc21th/17782864> 서금랑 작품 17집)를 통해 널리 소개해왔다.

사람들은 서 회원이 속건성速乾性 도료塗料라 일반 회화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열악한 재료인 매니큐어의 미세한 붓을 가지고 ‘눈꺼풀 연축’이라는 희귀 질환의 고통을 견뎌가며 초인적 노력으로 순수하고 환상적인 작품세계를 꽃피웠다는



제135회 전시작 중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아크릴판에 매니큐어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국미술협회 고문인 서양화가 구자승 화백은 “서금랑의 매니큐어 회화는 미술사에도 없었던 창의성에 넘치는 작품이다. 앞으로 개인전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큰 전시장에서 초대전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파의 귀



이후재(전 KBS)

창녕 성씨네 텃밭에 가면

나는 절로 땅 속에 묻힌 게 아니라는

양파를 만날 수 있다

일본군의 근황발을 피해 잠시 숨겼던 양파는

햇살과 빗물이 흘러들어 생명의 끈을 잡았고

푸른 안테나를 세워 조국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탱크와 포탄으로 이 강산이 찢어질 때

상한 몸으로 돌아오는 오빠 삼촌을 기다렸다

홀홀 훗겁의 옷을 벗고 뽀얀 육신을 내밀었다

웬기 회복하는 혈육의 숨결 앞에서

청산을 닦는 달밤에는 광야로 발을 뻗는다

지금도 창녕 양파를 귀에 대면

가마니 짜는 소리 툇썩거린다

